

선지식을 찾아서

웅산 스님 (수덕사 주지)

7월 6일, 덕숭산 산중에서도 폭염을 피할 도리는 없었다. 하지만 더위도, 추위도 없는 곳에 머무는 선지식을 찾아가는 길이라면 이런 무더위가 무슨 대수랴. 경허-만공 선사로 이어지는 한국 근현대 선종의 근거지인 선종대본산 덕숭총림 수덕사를 오르는 길은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

700주년을 눈앞에 둔 수덕사 대웅전(국보 제49호) 오른쪽 전각에 위치한 주지실. 이날 아침 무작정 전화를 드리고 올라온 불청객을 수덕사 주지 웅산(熊山) 스님은 다정한 미소로 반긴다. 주지소임을 맡고 계시지만 선방수좌 출신의 당당함이 온몸에서 풍겨 나온다.

“조용히 정진하시다가 분사주지 소임을 맡으시니 어떠신지요? 수좌로 살 때와 다른 점이 계시다면?”

“선객과 소임자가 다르지 않아요. 소임 보는 사판도 늘 걸망을 벽에 걸어놓고 내일 떠날 준비가 되어 사면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수좌입니다. 선방에서 정진 잘 하는 것 역시 소임을 잘 사는 일이고 포교 잘 하는 일입니다. 가장 큰 포교는 견성하여 부처가 되는 것이지요.”

스님은 가장 큰 포교가 일거수 일투족 절제된 생활 모습을 보이는 수행자의 위예에 있다고 말한다. 그러다 보니 주지 소임을 보더라도 늘 수행하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고 대중에 봉사한다는 자세로 하신다.

“삼계에 홀로 높은 것을 ‘수(首)’라 하고, 육근이 청정한 것을 ‘좌(座)’라 하지요.”

‘수좌’의 뜻을 안다면 직함이라는 형상을 취할 것이 아니라 뜻을 취함에 귀함을 일컫는다. 그래서 스님은 “반일은 좌선하고 반일은 운행하는 그런 자세로 소임을 산다”고 한다.

스님이 발심출가한 동기가 궁금했다. “젊은 시절 청담 스님의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글에 나오는 <금강경> 계승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일엽 스님의 <정순을 불사르고>란 책을 통해 만공 스님의 ‘나를 가르쳐 주는 곳은 선방이다’라는 법훈을 접한 것이 출가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1944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난 스님은 16세에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생로병사에 깊은 의문을 갖게 됐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에 불교에 심취하게 되어 불서를 섭렵하던 중 만공 스님의 법문을 접하고 만공 스님이 주석하던 수덕사로 출가하게 된 것이다. 그때가 20세 때인 1966년이었다.

처음 입산하기 위해 찾아뵈었을 때 벽초 노스님의 말씀을 웅산 스님은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

“집에서 농사 짓는 것보다 선(禪) 농사 짓기가 더 힘들어 할 수 있겠어?”

어떤 형식이나 틀에도 얽매음이 없이 소탈한 무애



의 삶을 살았던 벽초 스님은 원담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도록 했다. 어느 날 오는 겨울 낮 처음 원담 스님은 깨끗한 모습, 얼굴에 티 하나 없는 동인이었다.

얼마 후 원담 스님은 웅산 스님에게 ‘만법귀일 일귀하처(萬法歸一 歸何處)’ 즉, ‘만법이 하나로 돌아오니, 하나가 무엇인가?’ 하는 화두를 제시했다.

“만법귀일 일귀하처” 화두를 들고 순일하게 정진하던 1968년 행차 시절의 어느 날, 웅산 스님은 무아(無我)의 경계를 체험하기도 했다.

“나라는 것도 없고, 대상도 없고,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경지라고 할까요.”

하지만, 원담 스님은 그러한 경계에도 머물지 말고 더욱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어떤 신묘한 경계에도

집착하지 않고 묵묵히 20여년간 선방에서 정진하던 스님은 1988년 토굴(운수암)에서 또 한번의 계기를 맞이한다. 어느 날, 스님은 연못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원담 스님께 계승을 지어바쳤고, 그에 대한 점검의 계승을 받기도 했다. 수행과정에서 그때 그때 지도와 점검을 받을 수 있는 선지식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다. 원담 스님을 모시면서 느낀 소감을 스님은 이렇게 회상한다.

“몇 백년에 한 번 탄생하기 어려운 대선지식입니다. 법력으로나 예술방면에서나, 평소 생활모습에서도 도저히 흉내 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절정, 우송, 법정, 법안, 법용 스님과 저를 비롯한 일곱 제자들이 마지막 한 말씀은 여쭈었을 때 임종계를 조금도 주저

함이 없이 설하신 장면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습니다. ‘올 때도 이 한물건(一物은 온 일이 없고, 갈 때도 이 한물건은 갈 일이 없다. 오고 가는 것이 본래 일이 없어, 청산의 풀은 스스로 푸르구나.’

육신은 병들어든 정신은 조금도 흐트러짐 없었던 모습, 풀이 아파도 한번도 화를 내거나 웃음을 잃은 적이 없었던 모습에서 대선사의 진면목을 보았습니다.”

스님은 임종계의 유무나 말뜻에 거북함이 있는 게 아니라 순간까지 평상심으로 깨어 있는 모습, 한 순간도 한물건을 놓치지 않고, 잃지 않고, 대상에 그달리지 않는 모습이 참된 수행자의 자세임을 강조한다.

수덕사의 해암 노스님의 가르침도 큰 경력이 되었다. 해암 스님은 큰 절에서 토굴(운수암)로 내려갈 때 이런 계승을 써주었다.

“인연으로 좇아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 눈멀고 귀먹은 것처럼 평생 수행하며 살아가라.”

그렇다면, 스님이 눈멀고 귀먹으며 닦아온 선(禪)이

공부입니다. 해제 결제가 따로 없이 순간결사가 가장 좋은 수행입니다.”

‘순간결사’라는 말은 생소한 단어임에도 바쁜 생활인에게는 더욱 귀중한 법문으로 여겨졌다. 일상속에서 순간결사는 어떻게 응용될 수 있을지가 궁금했다. “일에 몰두하는 순간에 화두는 어떻게 됩니까?”

“일하는 그 자체가 화두입니다.”

화두 이야기가 나오자 스님은 “공안과 화두의 차이를 아느냐?”고 묻는다.

아는대로 말씀드렸더니, “좀 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신다.

웅산 스님은 어느 해 여름 날 서울역에서 급속노조원 5000여명이 시위할 때 겪은 예를 들려 현대판 공안과 화두에 대해 설명해 준다.

“노조원들이 단상에 올라가 울동을 한 뒤 내려오자, 노조위원장님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산사에 가보셨습니까? 절에 갔더니 큰스님께서 화두를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화두는 이것입

해제 결제 따로없이 ‘순간결사’ 자세 중요

수행자의 자세는 늘 평상심 유지하는 것 일체 현상계의 모든 생멸법은 꿈과 같아

란 한 마디로 무엇일까?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지 깨달음입니다.”

30여 안경을 성만하면서 스님은 이제 이판이니 사판이니, 출가니 재가니 하는 분별마저 개의치 않게 되었다. 언제 어디서나 분별 망상 없는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를 누리게 된 것이다.

“평상심이란 무엇입니까?”

“때묻지 않은 청정한 마음입니다. 다려도 참선, 앉아도 참선,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고요할 때도 본체가 평화로운 것입니다.”

이러한 ‘평상심이 도’인 삶은 무애자재한 덕숭문중의 가풍이 아닐까 여겨졌다.

“덕숭총림의 가풍은 무엇인지요?”

“너무 형식이나 격식, 의식에 치우치지 않고 내용이 알차게 실천실수하는 공부 풍토입니다.”

스님은 20일, 석달 등 기한을 정해 결사(結社)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순간결사(瞬間結社)를 하는 마음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마음에 해태심이 나거나 무기력해지거나 망상이 들 때 바로 화두를 챙기는 게 순간결사라 하겠지요. 화두는 나를 반조해 가는 귀중한 자산이기에 해이해졌을 때 되잡아하는

니다. 목을 자르지 마라.’

이러한 장면을 보고, ‘이 더운 날 뭣하는 것이야?’ 하고 질문하는 것이 공안이라면, ‘목을 자르지(해고하지) 말란 말이야’ 하는 말로 의문을 유발하는 것이 화두입니다.”

이런 이치를 초심자에게 분명히 말해줄 수 있어야 바르게 화두공부를 지어갈 수 있다는 게 스님의 생각이다. 화두 이야기가 이어지니, ‘스님은 요즘 어떤 화두를 들고 계실까?’ 궁금했다.

“생각생각이 다 화두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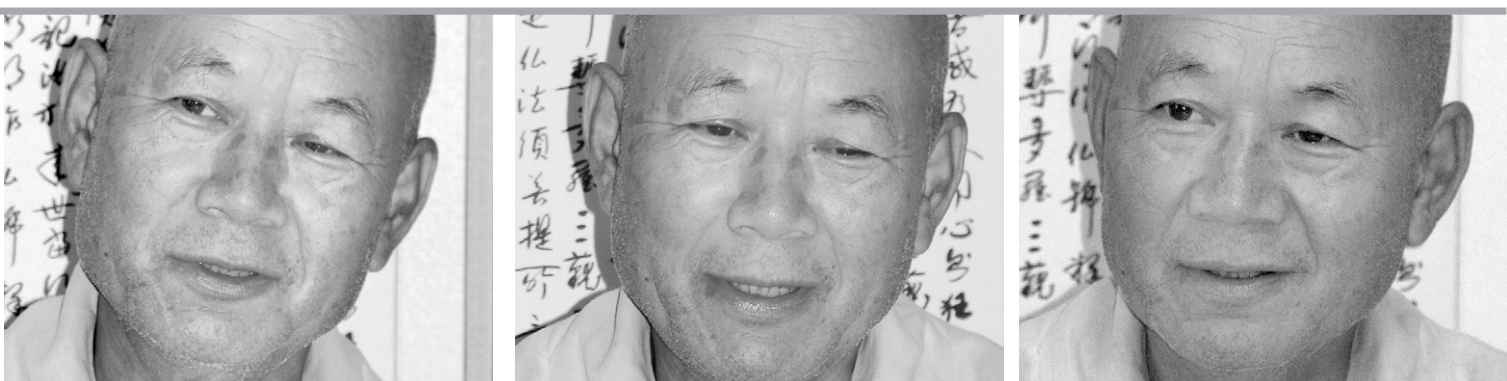
더 이상의 궁금증이 사라졌다.

문답을 끝내려고 하니, 스님께서 부처에 붓글씨로 인생여몽(人生如夢) 즉, ‘인생이 꿈과 같다’고 써주신다. “일체 현상계의 모든 생멸법은 꿈·환상·물거품·그림자·이슬·번개와도 같으니 응당 이와 같이 관하라”는 <금강경> 계승이 떠올랐다.

스님은 번뇌·망상을 털어내는 부처와 함께 일체의 앞을알이를 차단하는 화두를 제시하며 기자를 배웅했다. “꿈도 없고 생각이 없을 때(無夢無想時) 내 주인공(主人公)이 어느 곳에 있어서 안심입명(安心立命)하는가?” 글·사진=김승우 기자

웅산 스님은

1944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난 스님은 1966년 수덕사 방장 원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66년 해암 스님을 계사로 시미계를, 1970년 해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73년 망월사를 시작으로 도성암, 남곡선원, 법주사 총지선원 등 제방선원에서 30여곳을 성만했다. 스님은 이사(理事)에 걸림 없이 중무행정과 포교에도 심혈을 쏟았다. 1983년 수덕사 총무국장을 시작으로 1996-2007년 조계종 재심회계위원, 2001-2007년 향천사 주지 및 향천선원장을 역임하고 2006년 충남경찰청 경승지단장, 2007년 수덕사 주지 및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 부총재에 각각 취임했다. ‘신일본 도서전(圖書展)’ 특선 수상 등 서예에도 조예가 깊은 스님은 <빈사에 사 람없어도 꽃은 피고 물 흐르더라> <홀로 허허 웃는 달> <산중산책> 등의 저서를 펴내기도 했다.



전통과 실력의 우수업체

범양금고 불전함

일반 내화금고 (가정용, 사무용)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이미지는 실사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목재 불전함과 크기 및 외관이 흡사하여 금고를 사용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 하였으며 통강판으로 견고하게 제작하였습니다. 특히 투입구의 취약함을 차단하여 더욱 안전하며, 바퀴부착으로 이동 및 설치가 편리합니다. 수시로 훼손되는 목재형 불전함과는 안정성 및 비용면에서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불전함 야외용 주문 제작 가능]

범양금고의 모든것이 있습니다. <http://bumyang.net>

BV630 사무형 [중량 100KG] 외부 630x500x500 내부 410x360x335	BV670 사무형 [중량 120KG] 외부 670x500x500 내부 450x360x320	BV750 사무형 [중량 140KG] 외부 750x520x500 내부 550x410x340	BV860 사무형 [중량 160KG] 외부 860x580x510 내부 660x460x340
---	---	---	---

기존 불전함 투입구의 취약함을 보완하여 도난을 방지 할 수 있는 구조!!

불전함 내부구조

불전함 · 외 부·높이 700×넓이 700×깊이 350(mm)
· 투입구: 가로 380×세로 90(mm) · 무 게: 60Kg

특히신중중. 주문제작. 전국 택배 가능 (최대 3일내)

마산 탐사, 부산 금정시의 계룡사,보광사,법성사,해림정사 등에서 이미 그 가치를 인정 받고 있습니다.

범양금고. 전화 02)2277-1540 / 031)764-6234, 6233 / 팩스 031)764-6462
011-414-2304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연곡리 172-5